



新羅 ‘儀鳳四年皆土’명 기와와 納音五行

The inscription Yí fèng sì nián jiē t (儀鳳四年皆土) on Shilla age roof tile and sound matching to Five Elements (納音五行)

저자
(Authors) 이동주
Lee, Dong-Joo

출처
(Source) [역사학보 220](#), 2013.12, 1-29 (29 pages)
[The Korean Historical Review 220](#), 2013.12, 1-29 (29 pages)

발행처
(Publisher) [역사학회](#)
THE KOREAN HISTORICAL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391491>

APA Style 이동주 (2013). 新羅 ‘儀鳳四年皆土’명 기와와 納音五行. 역사학보, 220, 1-2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9 14:3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新羅 ‘儀鳳四年皆土’명 기와와 納音五行

이 동 주*

- I. 머리말
- II. ‘皆土’에 관한 그간의 시각
- III. 納音五行과 ‘皆土’의 의미
- IV. 문무왕의 왕경개조
- V. 맺음말

I. 머리말

‘儀鳳四年皆土’명 기와는 신라 왕경에서 출토된 유일한 연호명 기와이다. 명문에 보이는 儀鳳은 당 고종의 연호로서 調露로 개원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다.¹⁾ 기와의 제작연대는 신라 문무왕 19년에 해당하며, 왕경의 대규모 토목공사와 관련된 자료로 이용되어 왔다. 지금까지 축적된 성과들을 검토하다보면, 의외로 명문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적다. 이는 아마 명문 속 ‘皆土’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였기 때문은 아닌가 싶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왕토사상이나 토목공사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실은 ‘土’라는 단어를 통해서이다. 말하자면 왕토사상이나 토목공사 모두 ‘土’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와의 연대가 679년이고, 이 시기에 왕경의 대규모 役事가 실재했다는 점에서 그간 축적된 성과들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 경북대 사학과 강사

1) 『舊唐書』卷5 本紀5 高宗 李治 下 104 “六月辛亥, 制大赦天下, 改儀鳳四年為調露元年.”

그런데 기와에 새겨진 연대와 관련된 명문은 제작자나 소비지, 시주자나 제작 시기를 표현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명문의 의미를 다른 시각에서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다른 자료와는 달리 막연히 ‘皆土’로 표현되어 있어 굉장히 이질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同時代 중국의 금석문 자료와 類比해 보았다. 중국 서안의 비림박물관에는 당의 경운종이 걸려있다. 이 종의 표면에는 도교의 찬양과 주성내력이 음각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주성 연대의 연월일에 해당하는 육십갑자에 각각 해당 오행을 덧붙여서 시간성을 표현하였다.

이 원리를 ‘儀鳳四年皆土’명 기와에 적용해 보았다. 백가쟁명인 ‘皆土’를 직역하면 ‘모든 것이 토’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皆土’가 시간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한 형태라고 한다면, 연월일의 간지가 모두 오행의 토에 해당하는 납음오행의 표현일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제작시기의 구체적인 표현인 것이다. 더구나 의봉 연호는 679년 6월 조로로 개원되기 전까지 사용이 되었다. 때문에 월간지의 구체적인 시점도 좁혀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일본에는 칠지문서의 형태로 고대의 달력이 존재하고 있다. 달력에는 역주가 달려있는데, 각종 금기가 나열되어 있다. 그러므로 해당 일간지 중에서 이런 날을 소거시키면 좀 더 구체적인 날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할 수 있다.

이 기와는 문무왕에 의해 기획된 왕경개조에 동반하여 권위건축물에 공급되었다. 특히 제작기법이 다른 2종의 기와에서 각각 동일한 명문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즉 단판타날기와와 중판타날기와에서 이 명문이 모두 확인된다. 신라기와의 제작 기법은 시간적 흐름 속에서 단판→중판→장판타날로 변화한다. 타날작업의 단축은 기와제작 공정의 단축과 직결되는데, 그 이면에는 막대한 수요가 전제되어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역사에는 반드시 택일의 과정을 거쳐 공사가 이루어졌다. 택일은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날짜를 선택하는 것이다. 택일을 거처 공사가 시작되면 어느 시점에서 건축물의 최종 마감부재인 기와도 제작된다. 건축물의 준공일을 고려하면 기와의 제작시점도 아울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선

상에서 기와의 제작일자를 의미하는 '皆土'는 연월일 간지 모두가 '土'라는 의미를 지닌다. 더 나아가 '토'는 오행의 방위에서 중앙에 위치한다. 이는 왕경의 개조에서 중심성을 창출하는 데 없이 좋은 방위개념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제반사항을 유념하면서 글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해 보았다. II장에서는 '儀鳳四年皆土'와 관련된 선학들의 그간의 시각을 정리해 보고,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 볼 것이다. 사실 여기서 다룬 여러 시각은 현재까지 축적된 선학들의 성과에 크게 빚을 지고 있다. 이어 III장에서는 명문 속에 보이는 '개토'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납음오행의 한 표현임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논증을 위해 중국의 景雲鐘의 명문과 기타 여러 고고학적 자료를 아울러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儀鳳四年皆土'명 기와가 제작된 문무왕 19년에 왕경에서 이루어진 대규모의 役事가 가지는 의미를 음미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제현의 질정을 구한다.

II. '皆土'에 관한 그간의 시각

'儀鳳四年皆土'명 기와는 大坂金太郎(1969)에 의해 최초로 주목을 받은 듯 하다. 大坂이 소개한 기와는 원래 今西龍이 1919년 6월 안압지 동남쪽 밭에서 습득한 것으로서, 1969년 기와의 탁본을 인수받아 학계에 공표한 것이다. 그는 여기서 명문의 '皆土'를 佛典에 보이는 '畝土' 혹은 '國土'와 같은 말에 해당된다고 전제한 후 '率土皆我國家'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어떤 과정을 거쳐 '皆土'란 단어에서 率土皆我國家라는 문단이 이끌어 내었는지 전후 사정은 알 수 없다.²⁾ 다만 기와의 제작시점이 삼국통일이 달성된 문무왕대인 점을 염두에 두고 통일된 영토는 왕의 땅이라는 思考, 이른바 왕토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 것 같다. 사

2) 불교경전의 원문을 서비스하는 사이트(www.cbeta.org)에 검색한 결과, 率土·國家 등의 용어는 보이지만 위의 문단은 확인되지 않는다(검색일 2013년 6월 30일).

실 이러한 왕토사상은 경주의 鄕土史家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그들은 ‘皆土’를 삼국통일 그 자체로 보았다(권오찬 1980; 윤경렬 1984). 이러한 견해는 어떠한 확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논한 것은 아니지만 기와의 제작시점이 통일 기인 문무왕대라는게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기동(2005) 역시 ‘皆土’를 ‘率³⁾土皆我國家’의 약어로 본 大坂의 견해를 수용한 후 의봉 4년을 전후한 시기에 한반도의 모든 토지는 신라의 것이라는 통일의식의 소산으로 간주하였다. 다시말해 문무왕 19년 전후의 시기에 한반도의 전 토지에 대해 신라의 것이라는 자랑스런 통일의식의 고취가 반영된 표현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고경희(1993)에게서도 확인이 된다. 그는 ‘皆土’가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의 토지를 합친 삼국통일의 의미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구려 19대왕인 광개토왕의 시호인 ‘開⁴⁾土’와 비교된다고 한다. 즉 광개토왕이 地境을 개척한 업적을 기려 시호가 된 만큼 그 선상에서 ‘皆土’를 지경을 합친 의미로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박흥국(1986)은 개토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삼국통일을 의미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었다. 즉 토란 용어에서 통일이라기 보다는 뭔가 땅을 파헤치는 토목공사와 관련된 용어로 추정하면서도 차후 이 부분에 대한 정치한 분석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전덕재(2009) 역시 개토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곤란하지만 무엇보다 땅을 파헤쳐 대규모 공사를 하였다는 의미로 보았다. 토목공사와 관련된 견해 역시 입론의 배경에는 기와의 연대가 문무왕대 大役事의 시기와 부합한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최민희(2002)는 ‘儀鳳四年皆土’명 기와만 전적으로 다루었는데, 통일기년으로 보았다. 즉 일통삼한의 해는 676년이 아니라 의봉사년인 679년으로 보고, 이해야말로 삼한을 영토적으로 통합한 실질적인 해이자 통일기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皆土’의 의미를 민족 통일의 의미인 ‘삼국통일’이 아니라 일통삼한,

3) 率의 오타가 아닌가 한다.

4) ‘皆土’와 ‘開土’를 서로 착각한 것 같다.

즉 “삼한을 영토적으로 통합한 것”으로 해석해야 옳다고 보았다. 그리고 최근 국립중앙박물관(2011)에서 기획·전시된 특별전 「문자 그 이후」에서도 개토를 통합의 의미로 이해하였다. 즉 676년 기벌포 전투에서 당군을 물리치고 (679년)탐라국 경략에 이어 궁궐을 중수하고 동궁을 창건하였는데, 이 해 이 기와를 만들어 왕경 전역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문의 의미는 “의봉사년에 영토를 모두 함께 함”으로 풀이하였다.

지금까지 기와의 명문에 보이는 ‘皆土’의 의미를 제시한 여러 견해들은 명확한 답은 없지만 크게 왕토사상, 토목공사, 일통삼한, 영토통합 등의 의미로 갈려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견해들의 한계는 구체적인 증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선 왕토사상의 경우 왜 굳이 기와의 넓은 서사 공간을 두고서 이를 압축적으로 표현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아무리 기와의 표면이 좁다고 하더라도 ‘대왕의 영토’ 정도의 내용도 담지 못할 만큼 서사공간이 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토목과 관련된 견해 역시 굳이 토목이라는 용어 대신 왜 ‘皆土’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물론 기와의 제작시점이 문무왕 19년이며, 문헌에도 당시 대규모 토목공사가 시행된 점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皆土’의 ‘土’에서 ‘토목’이라는 용례를 이끌어 내었으나, ‘皆’리는 단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더구나 기와의 명문 가운데 토목공사를 지칭하는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일통삼한이나 영토통합에 대한 견해도 그렇다. 특히 일통삼한에 대한 견해는 당시 당은 토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고, 재침에 대한 우려가 종식된 상황을 간파한 신라의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시각은 신라가 對唐 긴장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졌으면서도 왜 하필 당의 연호를 기와에 찍어 왕경개조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더구나 나당전쟁 이후 이루어진 신라의 급진적인 군비증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평화기가 도래하면 군비축소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신라의 중앙군단인 9서당은 신문왕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이 되며, 성덕왕대 이전까지 당군의 재침논의는 지속된다. 당시 대부분의 고위 무관직은

진골귀족들이 장악하고 있었다(서영교 2007). 때문에 전제왕권이 강화되던 시기 진골들의 참여는 국제전 재발에 대한 위기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통일신라시대 제작된 단문의 기와명문에 대한 백가쟁명의 원인은 사실 ‘土’란 한 글자와 문무왕 19년이라는 시기가 배후에 있다. 즉 ‘土’리는 것이 영토를 의미할 수도 있고, 토목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와의 제작시기가 문무왕 19년의 대규모 役事와 겹치면서 여러 오해가 생길 여지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와의 명문 구성은 주로 소비지나 제작자, 시주자 혹은 제작시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수량적으로 우세하다는 점에서 기와의 견해들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다음절에서는 ‘皆土’가 가지는 의미가 시간성의 구체적인 표현임을 논증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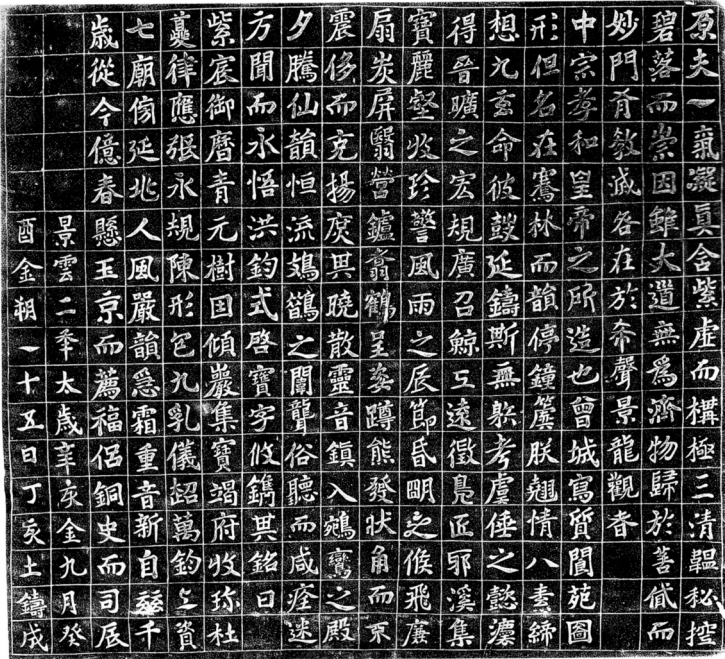
Ⅲ. 納音五行과 ‘皆土’의 의미

‘儀鳳四年皆土’명 기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기와의 표면에 명문을 타날하는 행위는 없었다. 겉으로는 미미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 이후 신라가 멸망하기 까지 왕경에서 연호명 기와가 등장하지 않았음을 상기한다면 실로 제작상 큰 의미를 가진다.

명문의 현상은 중서로 2자씩 3행으로 ①儀鳳, ②四年, ③皆土로 배열되어 있다. 여기서 儀鳳은 당 고종의 연호이며, 그 四年은 679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명문 가운데 儀鳳四年까지는 일단 시간성을 반영하는 문자가 분명하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皆土’의 의미는 굉장히 모호하며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상태이다. 그래서 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同 時代 중국의 동종명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 서안의 비림박물관에는 당나라 동종이 하나 걸려있다. 당 예종 2년에 주성되어 景雲鐘이라 불리우는 이 종의 원래 명칭은 景龍觀鐘이다. 이 종에는 도교의 찬양과 주성내력을 가로 18칸× 세로 17칸의 井間에다 음각을 해 놓았는데, 당 예

종의 친필이라 한다(王翰章 1986, 40). 명문의 말미에는 두 칸에 걸쳐 주성연대가 나오는데 위의 5칸을 비운 다음 글을 썼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경운종의 탁본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1>과 같다(碑林博物館 2000, 17).



<그림 1> 당 경운종의 명문

경운 2년은 당 예종 2년으로 711년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시간성을 보여주는 명문은 말미의 22자이다. 명문의 주된 골자는 말미에 종이가鑄成되었다는 것 빼고는 모두 주성연대를 나타내고 있다. 경운종과 관련된 중국측 연구성과를 참고하면 王翰章(1986, 42)은 석독에서 金九月에 끊은 다음 "金은 오행의 하나로 방위는 서이며, 때는 가을이다. 그래서 金九月은 곧 秋九月이다"고 한다. 9월을 오행의 방위와 관련시켜 가을이라는 계절성을 부가하고 있다. 다만 이것을 틀렸다고 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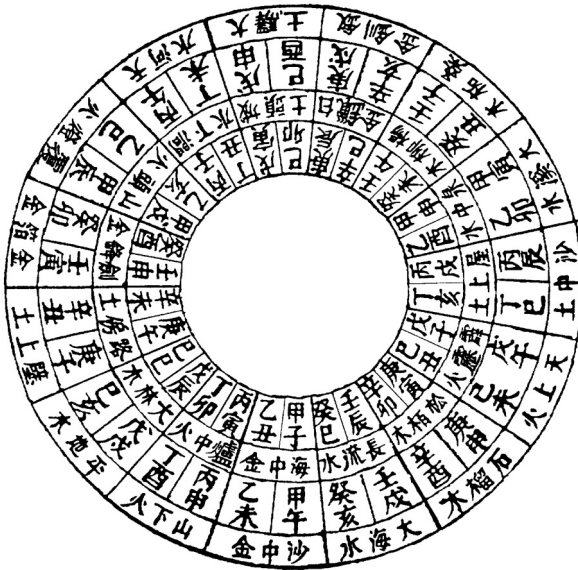
는 없지만 王翰章의 석독에는 끊어 읽기에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다. 즉 오행은 연월일의 해당 간지의 말미에도 붙을 수 있다. 십간과 십이지에도 음양과 오행의 구분이 있듯이 육십갑자도 마찬가지이다(尹暢烈 1996, 1). 육십갑자에 오행을 배합시키는 것을 납음이라 한다. 여기서 납음이란 宮(土)·商(金)·角(木)·徵(火)·羽(水)의 오음을 육십갑자에 배속시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경운종의 연간지에 해당하는辛亥에 金, 월간지인 癸酉에 金, 일간지인 丁亥에 土라하여 각각 간지에 해당 오행의 표시를 덧붙여 표기한 것이다. 때문에 명문은 王翰章이 석독한 가을 9월의 의미가 아니라 景雲二季/太歲辛亥金/九月癸酉金朔/一十五日丁亥土/鑄成으로 끊어 읽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므로 문장구성은 [연호+간지+목적]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오행이란 木, 火, 土, 金, 水의 다섯 가지 요소가 음양의 원리에 따라 진행하여 우주의 만물이 생성하고 소멸한다는 동양 고대의 우주론이다. 이러한 오행설은 전국시대 鄒衍이 체계화하였는데, 중국 역대왕조의 흥망성쇠를 이 원리로 해석을 하였다. 이후 이 원리는 한대에 이르러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사에도 적용이 되었고, 隋代에 이르러 籙吉이 기존의 이론을 집대성하여 『五行大義』란 책으로 귀결된다.

그러면 다시 ‘儀鳳四年皆土’를 보자. 일단 문장의 구조는 [연호+⊕(皆土)]로 되어 있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皆土)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들이 존재한다. 그만큼 해석하기 어려운 용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경운종의 사례처럼 간지에 오행이 붙은 형태라고 한다면 ‘儀鳳四年皆土’의 ‘皆土’도 시간성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명문의 의미를 직역해 보면 “의봉 4년 모든 것이 土” 정도의 의미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해가 타당하다면 명문 속에 보이는 ‘皆土’의 土가 오행과 관련된 납음을 표현한 형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모든 것’을 나타내는 ‘皆’라는 단어 속에는 연간지, 월간지, 일간지가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구조로 볼 수 있다.

더구나 ‘儀鳳四年皆土’의 儀자는 그 부수가 彳(두인변)으로 가획되어 있다. 물론 亻(사람인변)과 彳(두인변)의 부수 사용은 크게 보면 같은 의미의 한자이지만,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가획한 한자를 사용하였다.⁵⁾ 즉 음양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 가획된 글자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에서 무엇인가의 차별성이 느껴진다. 더구나 '儀鳳'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 봉황의 이칭이기도 하며(『大漢和辭典』卷1 1984), 晋代의 궁성 안에 존재한 누각 가운데 儀鳳樓가 존재한다(『初學記』卷24 居處部引『晋宮閣名』). 그러므로 이미 前代부터 사용된 용례이므로 唐代에 이르러 황제의 연호로 채택되면서 가획하여 차별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기와의 제작시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 어떤 원리로 작동하였는지 살펴보자. 설명의 편의를 위해 아래 <그림 2>와 <표 1>은 육십화갑납음표와 원형의 납음표를 도해한 것이다(김수길·윤상철 공역 2008)



<그림 2> 六十花甲 納音表

5) 儀鳳연호가 사용된 자료 가운데 ㄱ (두인번)으로 쓴 용례는 현재 부여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儀鳳二年'명 암키와와 중국 서안에서 출토된 예군묘지명에 '儀鳳三年'이 확인된다.

〈표 1〉 납음오행표

六甲	納音五行	六甲	納音五行	六甲	納音五行	六甲	納音五行	六甲	納音五行
甲子 乙丑	海中金	丙寅 丁卯	爐中火	戊辰 己巳	大林木	庚午 辛未	路傍土	壬申 癸酉	劍鋒金
甲戌 乙亥	山頭火	丙子 丁丑	澗下水	戊申 己卯	城頭土	庚辰 辛巳	白鐵金	壬午 癸未	楊柳木
甲申 乙酉	泉中水	丙戌 丁亥	屋上土	戊子 己丑	霹靂火	庚寅 辛卯	松柏木	壬辰 癸巳	長流水
甲午 乙未	沙中金	丙申 丁酉	山下火	戊戌 己亥	平地木	庚子 辛丑	壁上土	壬寅 癸卯	金箔金
甲辰 乙巳	覆燈火	丙午 丁未	天河水	戊申 己酉	大驛土	庚戌 辛亥	釵釧金	壬子 癸丑	桑柘木
甲寅 乙卯	大溪水	丙辰 丁巳	沙中土	戊午 己未	天上火	庚申 辛酉	石榴木	壬戌 癸亥	大海水

납음표를 보면 각 간지에 해당 오행이 배열되어 있다. 이를테면 甲子, 乙丑은 金, 甲戌, 乙亥는 火 순이다. 앞서 언급한 唐의 경운종의 경우 太歲辛亥金/ 九月癸酉金朔/ 一十五日丁亥土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다. 해당간지의 납음을 찾아보면 辛亥는 釵釧金, 癸酉는 劍鋒金, 丁亥는 屋上土이다. 그래서 오행에 해당하는 한자만 따와 간지와 결합시켜 신해금, 계유금, 정해토로 표기한 것이다. 사실 이러한 납음의 원리는 십간과 12지에 해당되는 오행과 맞물려 작동되며, 해당 오행은 만물의 生·旺·滅과 관련지어 배당된다. 이러한 오행이야 말로 인간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는 것이다. 즉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라져야지 또 태어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나정에서 출토된 ‘儀鳳四年皆土’명 기와의 내면에는 生자가 압날되어 있다. 즉 와통에 나무토막 등으로 글자 형태를 만들어 도드라지게 붙인 다음 태토를 감게되면, 동일한 명문이 압인된 기와를 동시에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작 의도는 生자가 찍힌 기와가 필요했음을 방증하고 있다.

그러면 경운종의 주성연대를 표현할 때 사용된 원리를 ‘儀鳳四年皆土’명 기와

에 적용해 보자. 우선 儀鳳四年은 679년 己卯年으로 연간지는 城頭土에 해당한다. 여기에 월간지의 경우 의봉연호가 679년 6월 조로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오행 토에 부합하는 것이 3월 戊申과 4월 己酉가 大驛土에 해당된다. 신리는 나당전쟁기간 중임에도 개원하는 당의 연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용하였다(노태돈 2009, 264). 이로인해 월간지도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일간지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二十史朔閏表』(陳垣 1978)를 바탕으로 추정해 본다면 3월은 6, 7, 20, 21, 28, 29일, 4월은 7, 8, 21, 22, 29, 30일이 각각 오행의 토에 해당된다. 아래 <표 2>는 해당 연월일 간지를 해당 납음에 대입시켜 정리한 것이다.

<표 2> '儀鳳四年皆土'의 연월일 간지의 해당 납음

연간지	월간지	일간지
679년 己卯(城頭土)	3월 戊申(大驛土)	6일 丙戌(屋上土)
		7일 丁亥(屋上土)
		20일 庚子(壁上土)
		21일 辛丑(壁上土)
		28일 戊申(大驛土)
		29일 己酉(大驛土)
	4월 己酉(大驛土)	7일 丙辰(沙中土)
		8일 丁巳(沙中土)
		21일 庚午(路傍土)
		22일 辛未(路傍土)
		29일 戊申(城頭土)
		30일 己卯(城頭土)

여기에 구체적인 제작시기를 좁혀 보기 위해 좀 더 추론을 해 보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고대의 실물 달력자료가 漆紙文書의 형태로 몇 점 출토된 바 있다. 칠지문서란 옷칠공방에서 옷칠용기의 덮개로 사용된 종이와 옷칠의 코팅으로 인해 씌지

않고 현전하게 된 문서를 의미한다. 지하에서 발굴되는 종이문서라는 점에서 그 당시의 자료로 인정된다. 칠지문서 가운데 달력의 현저한 사례로 1988년 발굴 조사된 武藏 國分尼寺 북서쪽 東京都 府中市의 도립부중병원 부지내 多摩지구의 武藏台 유적과 1981년 발굴 조사된 胆沢城跡의 정청 북동의 관청지구에서 출토된 자료를 들 수 있다(平川南 著·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엮음 2010). 당시 달력에는 曆注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달력에 주기를 기재하는 행위는 일찍이 중국에서 연유한 것인데, 달력의 근간이 되는 연월일과 그 간지, 24절기, 朔望 등과 아울러 각종 금기를 써놓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역주란 달력에 주기된 연월일시와 方角 등에 관한 금기 혹은 연중행사와 농사에 관한 주기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중국의 역법을 고스란히 도입하면서 이러한 전통도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원가력시대의 달력은 전해지지 않지만, 의봉력시대의 달력은 『정창원문서』와 城山遺跡 출토 목간에서 확인되고 있다. 역주는 통상 상·중·하단에 항목별로 기재된다. 이를테면 상단에는 남음·十二直, 중단에는 24절기·72候·60卦·沒·滅·弦·望·土用·社日·三伏·臘, 하단에는 大歲位·天恩·天赦·凶會·厭·厭對·重·復 등과 해 좋은 여러 일들을 기재한다(國史大辭典 卷14 1993, 722~723). 참고로 아래 <표3>은 고대 일본의 달력에 역주하는 방법을 도식화 한 것이다(平川南 著·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엮음 2010, 110).

문무왕대에 이르면 대나마 德福이 당에서 역법을 공부하여 귀국하여 새로운 역법을 고쳐 쓴 사례도 확인된다.⁶⁾ 그 역은 인덕력(당에서 665~728년 사용)인데, 기록을 보면 그대로 존중한다면 신라는 달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중국에서 차용했을 개연성이 크다. 일본의 역주에 대한 이해를 신라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3월의 寅·子·戌·申·未, 4월의 申·丑·未·辰이 해당되는 날은 往亡, 月煞, 厭對, 厭, 九坎, 歸忌, 血忌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 이날을 피했을 공산이 크다. 그래서 이 간지에 해당되는 날짜를 소거하면 3월 7, 20, 29일, 4월 8, 21, 30일로 구체적으

6)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 下 14年 “春正月. 入唐宿衛大奈麻德福, 傳學曆術還, 改用新曆法.”

〈표 3〉 역주를 붙이는 방법

母倉	天恩	天赦	往亡	月煞	厭對	厭	九坎	歸忌	血忌	曆注
節切	不斷	季節切	入節日 부터 센다	〃	〃	〃	〃	〃	節切	다루는법
子亥	甲子	(春) 戊寅	七日	丑	辰	戌	辰	丑	丑	正月
子亥	乙丑		十四日	戌	卯	酉	丑	寅	未	二月
午巳	丙寅		廿一日	未	寅	申	戌	子	寅	三月
卯寅	丁卯	(夏) 甲午	八日	辰	丑	未	未	丑	申	四月
卯寅	戊辰		十六日	丑	子	午	卯	寅	卯	五月
午巳	己卯		廿四日	戌	亥	巳	子	子	酉	六月
辰丑	庚辰	(秋) 戊申	九日	未	戌	辰	酉	丑	辰	七月
戌未	辛巳		十八日	辰	酉	卯	午	寅	戌	八月
辰丑	壬午			廿七日	丑	申	寅	寅	子	巳
戌未	癸未		(冬) 甲子	十日	戌	未	丑	亥	丑	亥
午巳	己酉	廿日		未	午	子	申	寅	午	十一月
酉申	庚戌	三十日		辰	巳	亥	巳	子	子	十二月
酉申	辛亥									
午巳	壬子									
午巳	癸丑									

로 좁혀진다.

한편 '개토'가 연월일을 아우르는 오행 토를 염두에 둔 시간성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본고의 추론이 허락된다면 기와의 명문 구성은 [연호+간지의 오행]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와 가운데 연호와 간지가 동시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례로 부여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龔昌七年丁卯年末印'명 기와가 주목된다. 회창은 당 무종의 연호이며 847년에 해당된다. 문장의 구조는 [龔昌七年(연호)+丁卯年(간지)+末印(α)]순이다. 역시 α에 해당하는 末印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알기 어려우며, 吉井秀夫(2004)도 명확한 해석은 피하였다. 다만 기와의 구체적인 제작 시점을 적기한 것이라는 본고의 이해가 틀리지 않았다면 오히려 12간지를 이용하

여 월을 구분한 月建과 관련된 표현은 아닌가 싶다.

이미 『周書』異域傳 백제전에는 7세기 백제에 “음양과 오행을 터득하고 송나라의 원가력을 사용하여 인월로 세수를 삼는다”⁷⁾는 구절이 있어 12지를 월에 대응시킨 사례가 확인된다. 아울러 신라에서도 월건을 이해하고 있었을 단서로 『三國史記』효소왕 4년조에 子月(11월)을 정월로 바꾸는 기사가 있으며,⁸⁾ 이어 동왕 9년에 다시 寅月(1월)을 정월로 회복하는 기사가 확인된다.⁹⁾ 때문에 ‘會昌七年丁卯年末印’명기와 명문 역시 구체적인 제작연월을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末印’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未·未나 巳·巳·己 등 자획이 유사한 한자가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었음을 감안한다면 12간지를 의미하는 未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회창 7년명기와도 제작시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형태이며, 명문의 구조는 [회창7년 정묘년 6월], 즉 [연호+간지+제작월]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와에 연호가 동반되는 경우는 구체적인 제작 시기를 표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儀鳳四年皆土’란 명문도 기와의 구체적인 제작시점, 정확하게 말하면 679년 3,4월 某日(3월 7, 20, 29일 혹은 4월 8, 21, 30일)에 제작된 기와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기와의 제작시기는 봄과 초여름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태토의 결빙으로 제작 자체가 어려우며, 여름철에는 아시아 문순 기후대에 위치한 한반도의 특성상 집중호우로 인해 가마의 운영상 애로가 많다. 때문에 기와의 명문에 보이는 해당 月은 기와의 제작상 좋은 시기임과도 조응하고 있다.

기와에 연호나 간지를 찍은 것은 것은 제작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그 선상에서 기와에 ‘儀鳳四年皆土’를 타날한 것도 어떤 모종의 의도성이 엿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 기와는 문무왕대 왕경의 개조에 특별히 채택된 기와임을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7) 『周書』卷49 列傳 卷41 異域上 百濟 887 “又解陰陽五行。用宋元嘉曆，以建寅月為歲首。”

8)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孝昭王 4年 “以立子月為正。”

9)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孝昭王 9年 “復以立寅月為正。”

신라 왕경에서 '儀鳳四年皆土'명 기와가 가지는 의미를 窮究해 보기로 한다.

IV. 문무왕의 왕경개조

신라왕경은 통일기를 맞아 그 범위가 조정이 된다. 왕경의 범위는 신라의 모태가 된 6부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왕경의 개조는 그 전제가 인적·물적 자원의 통제에 있다. 따라서 통일기를 맞아 일국의 수도로서 왕경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산곡간에 위치한 각 부의 여러 요소들을 현재의 경주분지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왕경의 6부는 경주분지로 집중되었는데, 그 대략적인 범위는 양부는 월성인근·인왕동·교동·황남동일대이며, 사랑부는 남산인근, 한기부는 명활산성·보문동일대, 습비부는 북천이북 황성동·동천동일대, 모량부는 서부동·성진동일대로 형성되었다(전덕재 2009).¹⁰⁾

문무왕대 왕경의 개조와 관련된 실물자료로서 '儀鳳四年皆土'명 기와를 들 수 있다. 물론 신라왕경의 개조와 관련해서 신문왕대 달구벌천도 포기로 인한 역량이 경주분지에 집중되었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기와가 왕경의 대규모 토목공사와 관련되었다고 지적한 기와의 성과를 존중하면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다. 다시말해 소비처가 왕경에만 한정된 만큼 어떤 모종의 특수성이 감지된다. 사실 기와는 건물의 지붕을 이을 때 사용되는, 말하자면 건물이 완공될 때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마감부재이다.

덧붙여 '儀鳳四年皆土'명 기와가 생산된 679년은 신라기와의 디자인이 새롭게

10) 최근 영남문화재연구원 이 발굴 조사한 모량리 526번지 일원에서 중심연대가 8세기에 이르러는 왕경유적이 확인되었다. 주요 유구는 담장, 도로, 우물, 적심건물지, 석축제방이 검출되었다. 유구의 중심연대가 8세기인 만큼 하대 방제의 붕괴에 의한 것인지, 처음부터 도시계 획하에 조성되었는지 차후 정치한 분석이 요구된다.

<http://www.ynicp.or.kr>(검색일 2013년 6월 30일)

변모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때는 고식수막새의 단조로운 단관연화문에서 벗어나 중관연화문으로 연관이 변하고, 주연에 연주문이 장식되는가 하면, 초보적이지만 암막새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와들이 이후 통일기기와양식의 시원이 된다. 안압지에서 출토된 소위 무악식 암막새의 외면에 ‘儀鳳四年皆土’ 명문이 타날 되어 있다.¹¹⁾ 소위 암막새의 시원양식이라 할 수 있는 무악식 암막새의 연대를 비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때문에 명문이 없는 무악식 암막새라 할지라도 그 제작시기를 679년 연간으로 비정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무악식 암막새는 중관연화문 수막새와 조합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막새의 연대비정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통일기에 처음 등장하는 중관 연화문 수막새의 경우 안압지 창건와로 불러도 좋을 만큼 그 연대관이 679년경으로 비정되어 있다(朴洪國 1988, 80). 정리하자면 이러한 기와들은 문무왕의 토목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에서 출토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아래 <그림3>은 ‘儀鳳四年皆土’명 기와와 조합관계에 있는 수막새와 암막새이다(國立慶州博物館 2000).



<그림 3> ‘儀鳳四年皆土’명 기와와 조합관계의 수막새와 암막새

11) 국립경주박물관, 안압지 출토 유물카드 「雁 510」

참고로 '儀鳳四年皆土'명 기와가 출토된 곳은 월성·안압지·계림로건물지·나정·나원리사지·인왕동사지·사천왕사지·망성와요지·침성대부근·동천동7B/L내 N4W14 지점·경주박물관부지·인왕동 556번지·S1E1유적, 재매정지 등이 있다(이동주 2008, 139~140). 그리고 최근 미탄사지와 경주박물관 남측부지 유적에서도 출토 사례가 보고되었다. '儀鳳四年皆土'명 기와가 출토된 유적의 공통성은 모두 월성인근에 위치하거나, 사천왕사나 나원리사지의 경우처럼 왕경의 대척점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나원리사지의 경우 성전사원인 봉성사로 보는 견해(윤선대 2002)를 수용하면, 이 사원들은 官道の 입구에 세워져 지방인이 왕경으로 진입할 때 처음 접하게 되는 권위건축물이 된다.

더욱이 사천왕사의 경우 중대왕실의 비호아래 창건된 사찰이다. 사천왕사는 『三國史記』직판지와 성덕대왕신종명에서도 冒頭에 등장하고 있어 중대에 寺格이 가장 높았던 사찰로 이해된다. 특히 통일기 사천왕사는 황룡사가 수행하던 僧政 기구의 역할을 대신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李泳鎬 1983; 蔡尙植 1984). 사천왕사의 낙성은 중대권력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통일기를 맞아 황룡사를 중핵으로 하는 중고기 왕실세력을 대신하여 무열왕계가 중심이 된 권력축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대변해 준다. 이렇듯 통일기 왕경의 개조는 무열왕계 중심의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예고하는 前兆와 같았다.

더구나 당에서 의봉이라는 연호가 제정된 배경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다. 즉 이 연호는 상서로운 새인 봉황을 목격한 연유로 인해 上元 연호를 대신하게 되었다.¹²⁾ 봉황의 몸체는 五常을 함의하고 있고, 그 출현은 천하태평과 상강성을 가지므로¹³⁾ 의봉연호의 사용은 왕경의 개조와 관련해서 더없이 좋은 이념적 배경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문무왕대 이루어진 일련의 왕경 개조는 어떤 모종의 기

12) 『舊唐書』卷5 本紀5 高宗 李治 下 102 “壬申，以陳州言鳳凰見於宛丘，改上元三年曰儀鳳元年，大赦。”

13) 『山海經』南次三經 “有鳥焉，其狀如雞，五采而文，名曰鳳皇，首文曰德，翼文曰義，背文曰禮，膺文曰仁，服文曰信。是鳥也，飲食自然，自歌自舞，見則天下安寧。”

확성이 감지된다.

한편 당시 왕경의 개조와 관련된 '儀鳳四年皆土'명 기와는 크게 2종류가 확인된다. 아래 <그림4>는 이를 도식화한 것인데, 우선 I 유형은 안압지 출토품이며, II 유형은 나정 출토품이다. 나정출토품의 경우 제작기법이 잘 표현된 기와의 경우 명문판독에 애로가 있어 명문이 양호하게 남은 부분만 잘라 진재하였다.



<그림 4> '儀鳳四年皆土'명 기와의 종류(축적부동)

여기서 I 유형은 안압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적에서 확인되는 전형적인 것이고, II 유형은 현재까지는 오직 나정에서만 출토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명문에 연호명이 있어 절대연대를 가진 두 기와가 타날방식이 전혀 다르다는데 있다. 즉 I 유형은 단판타날방식이며, II 유형은 중판타날방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타날이란 기와의 제작과정 가운데 태토내의 공기를 빼고, 밀도를 높이는 작업을 의미한다. 태토 속에 공기가 있으면 소성과정에서 열기에 의해 기포가 부풀어 올라 터져버린다. 이 작업을 통해 불량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다.

한편 현재까지 기와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시기별로 타날판의 크기가 단판→중판→장판으로 변화한다는 점에는 제가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崔兌先 1993; 趙成允 2000; 李仁淑 2004). 암기와를 기준으로 타날작업은 단판은 4~5번, 중판은 2~3번, 장판은 1번 정도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타날작업의 단축은 제작공정의 단축과 직결된다. I 유형의 경우 타날판에 명문과 문양이 함께 새겨져 있으므로 타날 작업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찍힌다. 그러나 II 유형의 경우 호선과 선문으로 된 중판타날판에 명문은 인장으로 따로 찍었다. 또한 기와 측면의 와도분할흔을 관찰해 보면 금속기를 사용하여 2~3번에 걸쳐 말끔하게 깎아 내었다. 그만큼 기와제작에 공을 들인 것이다.

단판타날에서 중판타날로 제작기법이 변화한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수용한다면, 679년이라는 시간 속에는 두 제작기법이 공존하는 과도기가 된다. 특히 옆두에 두어야 할 것은 나정출토 기와의 경우 중판타날 후 '儀鳳四年皆土'란 명문이 새겨진 인장을 별도로 찍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때 기와의 제작에는 이 명문 내용을 필요로 하는 의도성마저 느낀다. 한편 I 유형의 기와만 하더라도 최소 4종류의 타날판이 존재했음이 밝혀졌다(최민희 2002, 18~19). 제작공정의 단축과 다양한 타날판의 존재를 통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소비되는 기와제작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와가 제작된 679년은 신라왕경내 기와건물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문헌이 전하고 있는 문무왕의 대규모 토목공사와 부합한다. 문무왕은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다음 왕경에 대대적으로 토목공사를 단행하였다. '儀鳳四年皆土'명 기와가 제작된 679년에는 다음의 기사가 유의된다.

가을 8월에 금성(太白)이 달에 들어갔다. 각간 천존이 죽었다. 동궁을 짓고, 구경 안팎의 여러 문 이름을 처음으로 정하였다. 사천왕사가 완성되었다. 남산성을 증축하였다.¹⁴⁾

이때 동궁을 창건하고, 궁궐 안팎의 여러 문의 액호를 시정하며, 사천왕사를 낙성하고, 남산성을 증축하였다. 사료상에 전해지는 이 내용은 실제 동궁인 현재의 인압지나 사천왕사 등지에서 ‘儀鳳四年皆土’명 기와가 출토되는 고고학적 상황과도 정확하게 부합한다. 다만 이때 동궁이나 사천왕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몇 년전부터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기와는 목조건물의 최종 마감부재이며, 기와잇기의 종료가 그 건물의 완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儀鳳四年皆土’명 기와는 679년 완공되는 왕경내에서도 주요 건물에 공급되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왕경개조에 참고가 되었을직한 문헌으로 『文選』이 상기된다. 『文選』은 중국의 周代부터 남조의 梁代까지 근 1,000여년에 걸친 시·문장·논문 등을 梁의 昭明太子가 집대성한 것이다. 이 문헌이 언제 신라로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태종무열왕대 활약한 강수가 『文選』을 익히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그 이전에는 분명히 들어왔을 것으로 볼 수 있다. 『文選』에는 궁궐조영과 관련된 賦가 여럿 입전되어 있는데 그 중 西都賦는 漢이 천명을 받아 도읍을 조영하고 그 궁전은 우주를 상징하는 것이 주된 골자를 이루고 있다. 즉 궁실은 천지의 형태를 모방하고, 음양의 법에 맞추어 殿堂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나라시대 하급관료들이 『文選』을 교양으로 보편적으로 축적하였음은 平城宮跡·秋田城跡의 출토목간, 胆沢城跡의 칠지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平城宮 제 13차 조사에서는 SK820 구덩이에서 각각 『李善注文選』과 당의 王勃의 시문집인 『王勃集』의 시구를 적은 목간편이 출토되었다(岸俊男 2011). 평성궁에서 『文選』이 확인된 유물은 목간과 土師器皿 등이 있다. 모두 습서리는 공통점이 보이는데, 서사재료의 이용 구분이 엇보이며, 이는 당시 문서행정 환경에서 고대 관인들의 학습 지향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佐藤信 1999). 이 선상에서 『文選』이 궁전을 배치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하였다는 견해는 정철할 만하

14)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 下 19年 “秋八月, 太白入月. 角干天存卒. 創造東宮, 始定內外諸門額號. 四天王寺成, 增築南山城.”

다(內田和伸 2007). 이러한 이해가 틀리지 않았다면 신라도 궁궐의 액호를 정할 때나 건물의 營造시『文選』을 참고하였을 개연성은 무엇보다 높다고 하겠다.

한편『三國史記』를 보면 왕경내 방위를 지시하는 것이 문무왕 12년 9월까지의 동서남북으로 표현되다 同王 21년 6월부터는 팔괘의 용어로 대체 표현되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이동주 2008, 141~142).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왕경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단행한 문무왕 19년은吉日을 택해서 공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택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음양오행이 가장 조화를 이루는 날을 가려 뽑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 당대의 기록은 전하지 않지만 당과 일본의 영선령에는 공사에 앞서 날짜를 택일하는 의미심장한 기사가 입전되어 있다. 우선 아래의 기사를 보자.

① 궁성내 큰 영조 및 수리가 있을 때 모두 태상시에서 택일하여 물은 연후에 한다.¹⁵⁾

② 무릇 사저택은 모두 누각을 세워 인가를 넘보게 할 수 없다. 궁(성) 안에 영조와 수리할 것이 있으면 모두 음양료로 하여금 택일하도록 한다.¹⁶⁾

기사①은 '唐令'의 영선령 부분인데 '天聖令'이 발견되면서 복원된 조항이다. 주된 골자는 궁성내의 영조와 큰 수리는 태상시에서 택일한 연후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사②는 일본의 양노령인데 2개의 조문이 하나로 합쳐져 적혀 있다. 이 또한 궁성안의 영조와 수리는 음양료의 택일을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음양료란 천문관측, 달력작성, 시보, 이상한 일의 점치기와 보고를 담당하는 일본의 율령제 관사 가운데 하나였다(平川南 著·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15)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交證』下冊, 復原7 “宮城內有大營造及修理, 皆令太常擇日以聞.”

16) 『養老令』營繕令 3條 “凡私第宅, 皆不得起樓閣, 臨視人家. 宮內有營造及修理, 皆令陰陽寮擇日.”

엮음 2010, 101). 이 관청에 소속된 陰陽師가 곧 중국의 太卜에 해당한다.

중국에서 태상에 관한 관직은 그 연원이 오래다. 그 屬官으로 太樂·太祝·太宰·太史·太卜 太醫 등 여섯이 있는데(『漢書』卷19上 百官公卿表 7上 726), 音樂·祝禱·供奉·天文曆法·卜筮·醫療 등을 담당하였다. 태상에 소속된 관원들은 주로 의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다. 때문에 동아시아의 문화적 흐름이 중국-한국-일본이라는 루트의 상정이 타당하다면 분명 신라의 토목공사에도 이러한 범령으로 규제되었을 공산이 크다.

신라에서 택일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했을 관서는 여러 후보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중고기부터 국왕의 측근에서 근시관료로서 각종 길흉화복을 점치는 인물로 貞人이 존재하였다(李文基 1983). 유인이 근시관료가 된 연유에는 국왕이 내리는 모든 결정을 점을 쳐 길흉화복의 결과를 자문해 주었기 때문이다. 중고기 유인은 중대에 이르러 供奉卜師로 그 역할이 전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李賢淑 2005, 111). 供奉卜師의 경우 陰陽卜術을 맡은 관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택일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둘째 典祀署도 그 소임을 맡았을 후보로 거론해 볼 수 있다. 이 관부는 성덕왕 12년(713년)에 初置되었다고 하나 실무 관원에 해당하는 大舍는 진덕여왕 5년(651년)에 이미 설치되었다고 하므로(『三國史記』卷38 雜志7 職官 上), 문무왕의 대역사 이전에 토목 관련 실무진이 존재하였음을 엿 볼 수 있다.

셋째 경덕왕대 典祀署로 개칭된 工匠府도 시야에 넣을 수 있다. 공장부는 의례와 관련된 소비물자의 제작에 직접 관련하였던 관부로 이해된다. 신라시대 전사서의 역할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太常寺가 담당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 택일과 관련된 신라 당대의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존하는 일본 奈良朝의 율령이 중국의 율령제도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점을 유념한다면 散逸된 신라의 율령 복원에 인접국의 율령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길일에 맞추어 건물의 준공이 마감될 즈음 기와는 본격적으로 소요되기 시작한

다. 즉 기와는 건축물의 최종 마감부재로서 건물이 준공할 때 최종적으로 올려지게 된다. 다만 기와는 그 자체가 완결된 건축부재이지만 수천매가 동반해서 이어져야만 소기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와의 공급은 건축물의 완공시점을 염두에 둔 다음, 체계적으로 생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해가 타당하다면 문무왕은 왕경내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기획하면서 길일을 택했고, 각 건축물의 준공일정을 맞추었을 개연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기획성은 기와의 제작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듯 하다. 이와 관련하여 제작기법이 다른 '儀鳳四年皆土'명 기와가 2종이나 존재하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나정에서 출토된 기와는 월성이나 안압지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현재의 나정이 신라 당시의 나정과 동일한 실체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모종의 제사시설이라는 점에서는 제가의 견해가 합일된다(中央文化財研究院 2008). 따라서 궁궐, 사찰, 모종의 제사시설 등 왕경내 핵심적인 건물군에는 이 명문이 찍힌 기와를 필요로 했음이 看取된다.

신라 최초의 기년명기와의인 '儀鳳四年皆土', 이 기와는 소비처와 공급일시를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생산되었다. 또한 기와를 공급받을 권위건축물들은 사전 길일을 택해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 길일은 왕조의 영속성과 인명을 담보받는 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문무왕대 이루어진 왕경의 개조는 신라 최초의 연호명기와의인 '儀鳳四年皆土'를 제작하게 된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더 나아가 명문의 의미는 왕경의 중심성을 표상하는데 적합한 의미를 지닌 오행의 중앙인 '토'이다. 이러한 이해의 선상에서 三寅劍의 존재도 참고된다. 삼인검이란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12간지 중 호랑이를 뜻하는 寅이 들어가는 年·月·日에 만들어진 점이다. 즉 용맹함의 대명사인 호랑이가 들어가는 연월일에 검의 제작 시기를 맞추고 있다. 그럼으로서 호랑이의 용맹스러움이 점에 배여있길 염원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儀鳳四年皆土'명 기와도 토에 해당하는 연월일에 만들어졌다. 오행에서 土는 사방 가운데 중앙에 위치하여 生成의 덕으로 4계절의 주체이다. 『樂記』에 “春生, 夏長, 秋收, 冬藏.”이라는 구절이 확인된다. 즉 봄은 탄생, 여름은 성

장, 가을은 추수, 겨울은 갈무리로 풀이된다. 토는 특정계절을 주관하지 않지만 오행중 가장 존귀한 것으로 간주되며,¹⁷⁾ 오행의 주인공으로 중앙에 위치한다. 따라서 오행의 토에 관한 이러한 지존의식은 통일기 신라의 왕경을 중시화하는데 더 없이 좋은 사상적 배경을 제공한다.

더욱이 통일기 신라는 나름의 천하관을 표방하였다. 즉 망국의 귀족 안승을 익산에 이거시키면서 보덕국이라는 괴뢰정부의 왕으로 세움(『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 下 14年 9月)으로서 그 실체를 구체화시킨다. 그러므로 통일기를 맞아 왕경을 개조하는데 토의 의미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방위개념이 된다. 더구나 왕경은 국가의 중앙이며, 모든 지방에서 올라오는 인적, 물적 자원이 집중되는場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가의 상징적인 중심이자 권력의 중추가 형성된 왕경은 오행의 중앙에 위치한 토의 의미와 너무나 닮아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신라 최초의 연호명 기와 '儀鳳四年皆土'명 기와를 다루었다. 이 기와는 연대가 문무왕 19년인 679년이어서 그간 왕경의 대규모 토목공사와 관련된 자료로 이해되어 왔다. 명문의 내용 가운데 '皆土'는 명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었다. 그래서 토목공사나 왕토사상, 혹은 통일기연으로 이해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이해의 기저에는 '土'라는 단어가 주효하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더구나 이 기와가 제작된 시점이 문무왕의 대규모 토목공사의 시기와 부합하며, 일통 삼한을 달성한 이후의 일이므로 일견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와 명문은 소비처나 제작자, 혹은 시주자나 제작시기를 나타내는 것

17) 『白虎通』卷3 京師 『樂記』曰 春生, 夏長, 秋收, 冬藏. 土所以不名時, 地, 土別名也, 比於五行最尊, 故不自居部職也.”

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儀鳳四年皆土'명 기와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皆土'가 가지는 의미가 궁극적으로 제작시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용례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작업의 선상에서 동시기 중국의 동종인 경운종의 명문에 주목하여 보았다. 景雲鐘은 당 예종 2년(711년)에 주성되었고, 현재 중국 비립박물관의 야외전시장에 있다. 원래 명칭은 景龍觀鐘으로 표면의 井間에 도교의 찬양과 주성내력을 음각해 놓았다. 그런데 명문의 말미에 22자에 달하는 주성연대를 표현한 문구가 확인된다. 특이하게도 제작시기의 연간지, 월간지, 일간지에 해당 오행을 배속시켜 太歲辛亥金/ 九月癸酉金朔/ 十五日丁亥土로 표현하고 있다. 해당간지의 납음을 찾아보면 辛亥는 釵鉏金, 癸酉는 劍鋒金, 丁亥는 屋上土인데, 해당 오행 부분만 따와서 육십갑자와 결합시켜 놓았다. 여기서 육십갑자에 오행을 배속시키는 것을 납음이라 한다. 즉 납음이란 宮(土)·商(金)·角(木)·徵(火)·羽(水)의 오음을 육십갑자에 배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원리를 '儀鳳四年皆土'명 기와에도 적용시켜 보았다. 儀鳳四年은 679년으로 己卯年이다. 그러므로 연간지는 城頭土에 해당한다. 儀鳳연호는 679년 6월 調露로 개원되었기 때문에 오행의 토에 부합하는 월간지는 3월 戊申과 4월 己酉가 大驛土이다. 구체적인 일간지까지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현존하는 일본측의 달력 자료를 바탕으로 가능성을 제기한다면 3월 7, 20, 29일, 4월 8, 21, 30일로 구체적으로 좁혀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儀鳳四年皆土'란 명문을 해석해 본다면 '儀鳳四年 모든 것(연간지, 월간지, 일간지)이 토'정도로 파악해 볼 수 있을 듯 하다. 따라서 '皆土'는 토목공사나 왕토사상 혹은 통일기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호명에 동반된 날짜의 구체적인 표현형태였을 개연성이 오히려 높다고 생각된다.

이 기와가 제작된 문무왕 19년은 왕경에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단행된다. 특히 동궁의 창건, 사천왕사의 낙성 등은 중대왕실의 의도적인 왕경개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구나 이 기와는 주로 왕경의 핵심부라 할 수 있는 월성을 비롯하여 나정

(모종의 제사시설), 사원 등 권위건축물에 공급된 정황이 인정된다. 아울러 '儀鳳四年皆土'명 기와는 2종이 확인된다. 재밌는 사실은 2종의 기와가 제작기법이 전혀 다르다는 데 있다. 즉 1종은 단판타날이 되어있고, 다른 1종은 중판타날이 되어있다. 단판타날은 기와의 표면에 타날판으로 5회 정도 내려친 것이고, 중판타날은 2~3회 정도 내려친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태토는 밀도가 높아지고, 소성과정 중에 부풀어 터져 버리는 불량품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신라 기와의 제작공정은 단판→중판→장판타날이라는 시간적 흐름이 인정된다. 그리고 타날작업 단축의 이면에는 막대한 수요가 전제되어 있다. 문무왕 19년의 토목공사는 문헌에도 입전될 만큼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비록 불발에 그치고 말았지만 문무왕은 왕경의 주위에 나성을 축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왕경의 개조 결과 내부에는 상당히 많은 기와 건물들이 생겨나 새로운 경관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때 주요한 권위건축물에 공급된 기와가 바로 '儀鳳四年皆土'명 기와이다. 명문 가운데 '皆土'는 바로 연간지, 월간지, 일간지가 모두 오행 토에 해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행에서 '土'가 가장 중심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기와 제작일자 선택은 왕경의 개조에 더 할나위 없이 좋은 중심성을 함의할 수 있다.

(투고일 : 2013. 9. 30 심사시작일 : 2013. 10. 21 심사종료일 : 2013. 11. 23)

주제어 : 儀鳳四年皆土, 신라왕경, 납음오행, 길일, 문무왕

Keywords : Yí fèng sì nián jiē tǔ(儀鳳四年皆土), Capital of Shilla kingdom, Sound matching to Five Elements(納音五行), Auspicious day, King Munmu

[참고문헌]

■ 문헌

『三國史記』, 『舊唐書』, 『周書』, 『唐令拾遺』, 『山海經』, 『初學記』, 『白虎通』, 『養老令』

■ 한국어

國立慶州博物館 2000, 『新羅瓦塼』특별전 도록, 서울, 삼하인쇄.

국립중앙박물관 2011, 『문자 그 이후』, 서울, 통천문화사.

권오찬 1980, 『신라의 빛』, 경주시.

高敬姬 1993, 「新羅 月池 出土 在銘遺物에 對한 銘文 研究」, 東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김수길·윤상철 공역 2008, 『五行大義』, 서울, 대유학술총서 1.

內田和伸 2007, 「한·일 궁전의 설계사상에 관하여」, 『韓日文化財論集』 1,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朴洪國 1986, 「三國末-統一初期 新羅瓦塼에 대한 一考察」, 東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_____ 1988, 「月城郡 內南面 望星里 瓦窯址와 出土瓦窯에 대한 考察」, 『嶺南考古學』 第 5號.

徐榮敎 2007, 『羅唐戰爭史研究-약자가 선택한 전쟁-』, 서울, 아세아문화사.

윤경렬 1984, 『경주고적이야기』, 경주박물관학교.

尹善泰, 2002, 「新羅 中代의 成典寺院과 國家儀禮 -大·中·小祀의 祭場과 關連하여-」, 『新羅 金石文의 현황과 과제』,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제23집.

尹暢烈 1996, 「六十甲子와 陰陽五行에 관한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제5권 제1호, 대전.

李基東 2005, 「新羅 '中代'序說 -槿花鄉의 진실과 虛妄-」, 『新羅文化』 25집, 경주,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이동주 2008, 「기와로 본 신라왕경의 공간변화」, 『역사와 현실』 68호, 서울, 한국역사연구회.

李文基 1983, 「신라 中古의 국왕근시집단」, 『역사교육논집』 5.

李泳鎬 1983, 「新羅 中代 王室寺院의 官寺的 機能」, 『韓國史研究』 43, 韓國史研究會.

李仁淑 2004, 「統一新羅-朝鮮前期 평기와 製作技法의 變遷」,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李賢淑 2005, 「신라의 민간 의료인」, 『新羅史學報』 4집, 서울, 新羅史學會.

전덕재 2009, 『신라 왕경의 역사』, 서울, 새문사.

趙成允 2000, 「慶州 出土 新羅 平기와의 編年 試案」, 慶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蔡尙植 1984, 「新羅統一期 成典寺院의 구조와 기능」『釜山史學』8, 부산, 釜山史學會.
- 崔珉熙 2002, 「[儀鳳四年皆土] 글씨기와의 통해 본 新羅의 統一意識과 統一紀年」『慶州史學』21집, 경주.
- 崔兌先 1993, 「平瓦製作法の 變遷에 대한 研究」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平川南 著·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엮음 2010, 『되살아나는 고대문서』, 서울, 주류성출판사.

■ 일본어

- 國史大辭典編集委員會 1993, 『國史大辭典』, 東京, 吉川弘文館.
- 吉井秀夫 2004, 「扶蘇山城出土 “會昌七年”銘文字瓦のめぐって」『古代文化』11, 京都, 古代學協會.
- 大坂金太郎 1969, 「[儀鳳四年皆土]在銘新羅古瓦」『朝鮮學報』53號.
- 岸俊男 2011, 『宮都の木簡』, 東京, 吉川弘文館.
- 諸橋轍次 1984,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 佐藤信 1999, 『古代の遺跡と文字資料』, 東京, 名著刊行會.

■ 중국어

- 陳垣 1978, 『二十史朔閏表』, 中華書局.
- 王翰章 1986, 「景云钟的铸造技术及其铭文考释」『文博』.
- 碑林博物館 2000, 『碑林博物館圖錄』陝西人民出版社.
- 天一閣博物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天聖令整理課題組 2006,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交證』 下冊, 中華書局.

■ 보고서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3, 『慶州 仁旺洞 556·566番地 遺蹟 發掘調查報告書』學術研究叢書 36.
- _____ 2001, 『新羅王京』學術研究叢書 27.
- _____ 2001, 『月城孩子』學術研究叢書 41.
- _____ 2012, 『四天王寺1』學術研究叢書 73.
- 경주대학교박물관 2009, 『경주 동천동 고대도시유적』발굴조사보고서.
- 문화재관리국 1978, 『雁鴨池』발굴조사보고서, 서울, 문화공보부.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2, 「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B구역 2차)유적 약보고서」.
- 中央文化財研究院·慶州市 2008, 『慶州蘿井』發掘調查報告 第140冊.

[Abstract]

The inscription Yí fèng sì nián jiē tǔ (儀鳳四年皆土)
on Shilla age roof tile and
sound matching to Five Elements (納音五行)

Lee, Dong-Joo

(Kyungpook Univ.)

King Munmu executed large-scale civil construction works in the kingdom capital. There are roof tiles with inscription Yí fèng sì nián jiē tǔ (儀鳳四年皆土) among the construction materials used. Yí fèng (儀鳳) is the era name of Tang dynasty emperor Gao-zong (高宗) and sì nián (四年) is the 4th year therefore, Yí fèng sì nián (儀鳳四年) is A.D. 679. However, there are multiple opinion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st word jiē tǔ (皆土) in the inscription. One representative opinion is that the word jiē tǔ (皆土) contains the thought of [Royal domain] because the roof tile was manufactured after the completion of the Three Countries. Another opinion is that the word jiē tǔ (皆土) is related to large-scale civil construction works at the time. The first opinion interpreted the character tǔ (土) as Royal land; while the second opinion interpreted the word tǔ (土) as soil in civil construction.

Meanwhile, this study interpreted the character tǔ (土) as the expression of definite time of roof tile manufacturing. At the same period, the Jingyun Bell (景雲鐘) was casted in Tang (唐). The bell has the inscription of manufactured date on it and it shows relevant matching sounds (納音) to the sexagenary cycles of the manufactured year, month and day. Matching sounds (納音) is the matching of the Five Elements (五行) to relevant sexagenary cycles. From such viewpoint, the year, month and day of the word jiē tǔ (皆土) are all tǔ (土) in Five Elements. When they started a large-scale civil construction work in the kingdom capital, they always chose an auspicious day for groundbreaking.